Canton Pl 32

[Speaker 2]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 남편이 그거 하시고 이모님은 그 집에서 일하셨고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Speaker 1]

그렇지. 누구냐냐, 걔네 집이. 2011년, 일단은 앨리스네 집에는 2011년부터 가서 2015년에 수술하는 바람에 나왔어요.

그 전에 유철로에서 한 3년 또 했지. 2011년부터 2011년까지 했어.

[Speaker 2]

그러면 그 앨리스인가 그 집에서 단둘이예요? 응.

[Speaker 1]

그러고 이제 내가 자기 만날 때는, 그러고 자기 만났어. 그 전에 내가 음식을 해주러 다녔을 때 UCLA대학교 치대교수네 집에 반찬을 해주러 일주일에 두번씩 다녔지.

[Speaker 2]

치대교수가 여자예요?

[Speaker 1]

응. 홍교수. 지금은 저기가 있어.

[Speaker 2]

줄리 아니죠? 줄리?

[Speaker 1]

이름은, 한국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나이 저랑 비슷해요? 그럴 것 같은데 안경은? 안경은 안 썼어.

[Speaker 2]

지금은 그런데 지금도 UCLA에 있지는 않아요?

[Speaker 1]

응.

[Speaker 2]

세무라시 쓰고 아 그러면 아니다. 지금 현재 UCLA에 덴티스트 교수가 또 아는 사람이 있구나.

[Speaker 1]

거기 샌프란시스코 뭐 있잖아. UC 샌프란시스코 응. UC 샌프란시스코라는 거.

거기로 갔어. 그러는 바람에 거기는 차츰 줄이려고 하던 중에 그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자기네는 그냥 자기네 하나로만 정착을 한 거야.

[Speaker 2]

내가 아들 분은 그때 왜 그때 앨리스 시스템에서 지금도 그 회사 다녀요. 되게 오래 다니시네.

[Speaker 1]

걔도 거기서 수퍼를 해줬어요.

[Speaker 2]

이모도 참 영주권이 괜찮아.

[Speaker 1]

해도 돼. 영주권을 거기서 해주지 않고 우리 남편이 아까 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한남체인을 다닐 중에 신문 광고에 엔지니어 수퍼를 해주겠다. 그래갖고 모집하는 회사가 있었어.

가로수 이런 데 나왔어.

[Speaker 2]

그 신문이.

[Speaker 1]

영자 신문 아니고 한국 신문 그런데 남편이 거기다 이력서를 넣었어.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를 해서 거기서 수퍼를 해줬어. 다행히.

너무 럭키한 거지. 우리 애들 아빠가 똑똑한 거야.

[Speaker 2]

그리고 그거 딱 보고 적대 줬어. 딱 하신 거잖아. 기회도 계속 보시고.

[Speaker 1]

월급은 적어도 거기서 수폰이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 신분으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하고는 이제 일을 한 거지. 그런데 나는 학생의 부인으로 그냥 같이 묻어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수폰을 해줬어요. 영주권 받았어요. 우리 우식이는 앨리슨의 집에서 해주고.

그 회사가 타이밍이야. 옷 만드는 회사. 타이밍이 여기서 좀 큰 모양이야.

미국에서 알아주는.

[Speaker 2]

아니면 화민이 친구네도. 걔네도 다운타운에서. 그분은 옷보다는 가방, 악세사리 하시는 것 같은데.

[Speaker 1]

앨리슨은 진짜 미국에 자기 형제도 다 그쪽으로 다 집어넣어 줘서 완전 로야 패밀리야. 그 집은. 그쪽으로 돈 진짜 버시는 분들은 진짜 40년 전에 여기 그 아빠가 고대에 졸업한 사람이야.

거기서 화공학과 여기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하러 왔다가 놀러와서 살았다. 그 집도.

[Speaker 2]

당연히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진짜 영주권 해결을 잘 하셔가지고.

[Speaker 1]

그래서 해결이 잘 된 거지.

[Speaker 2]

저희 수혜 부모님도 보면 비슷하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못살겠던 마음으로 직장 다니시다가 여기로 2년인가 1년인가 학연 근무 왔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무작정 안 가셔가지고 불법으로 그냥 영주권 받기까지 6, 7년 걸렸다고 들었어요. 진짜 오래 걸렸는데 불법으로 오래 계시고 그러는 바람에 제이스는 아빠를 오래 못 봤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다시 아빠가 영주권 받아서 춤을 할 때까지 6년인가 7년인가를 아빠는 못 오잖아요. 한국을 못 타고 못 오시고 엄마는 점점 아버님이 불법으로 여기서 뭘 하셨겠어요. 보랠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점점 가세는 기울고 제이스는 기억하는 게 방이 있으면 어느 날부터 방에 하나씩 하숙을 주시는 거예요.

[Speaker 1]

돈 만들어야 되니까.

[Speaker 2]

그리고 애가 어린아들 둘 데리고 어디가서 일을 하겠어요. 또 애를 키워야 되니까. 점점 되게 어려졌다고 들었거든요.

[Speaker 1]

맞아. 우리는 다 애들 키워놓고 그러던 중에 우리 아들이 유학을 왔잖아.

[Speaker 2]

그러니까 먼저 두 분만 오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따로.

[Speaker 1]

우리가 둘이 정착하기 전에 한강 여행을 왔는데 얘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내가 여행을 왔다 갔는데 너무 예감이 이상한 거야. 아니 뭐 아르바이트 간다 그러고 오늘 수업 없다 그러고 그래. 그래서 난 대학을 안 다녔거든.

대학교는 자유롭게 수업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 학교에 전화해봤어. 그것도 이렇게 정학이 되어있는 거야. 그 돈을 미국으로 보낸 거야.

진혜 고모한테.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진혜 고모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나봐.

[Speaker 2]

고모가 또 미국에 계셨어요?

[Speaker 1]

미국에 있어. 지금도 있으세요? 있어 있어.

그래갖고 고모가 너 유학 오라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버지하고 의논했으면 순조로웠을 텐데 못 가게 할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외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1대1로 외아들이기 전에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손자 하나밖에 없거든.

다 딸들 만나가지고.

[Speaker 2]

그러니까 아주 금이야 옥이야.

[Speaker 1]

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내가 학교에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때 회사에 있을 때 남편한테 전화했어. 우식이가 정학이 됐대.

내가 학교에다 물어봤어. 재적이 됐대 재적이. 그래서 내가 다시 복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빠진 인원에 채워서 들어갔어.

[Speaker 2]

그래도 다행이야. 이모가 빨리 알아서 다행이야.

[Speaker 1]

그때 너무 놀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한대 갈겼대 우리 어머니 말이. 그러니까 핑크 돈 붙인 종이를 꺼내 사실은 지가 일반적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고모한테 이 돈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 그래서 아빠가 너는 지금 가면 복학을 안 했잖아.

제대하고 와서 복학을. 얘가 이제 전경 제대를 했거든. 전투경찰.

경찰 전경. 네가 지금 미국을 가면 너는 고절밖에 안 된다. 다 마치고 가라.

마쳐야 그래도 일단은 네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도 여기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네가 대학원을 와도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인정이 되지만 고절밖에 안 된다. 그래서 1년 3학기를 공부한 것 같아. 1년 반.

3학기 더 마무리하고 그리고 왔어.

[Speaker 2]

이모보다 먼저 온 거야? 나중에 온 거야?

[Speaker 1]

걔 먼저 왔지.

[Speaker 2]

아들이?

[Speaker 1]

응. 아들이 먼저 왔지. 걔는 2009년 우리 유나가 5월 30일에 시집을 갔고 2009년 5월 18일에 여기 들어왔어.

그러고 보니까. 그때까지 오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누나 결혼식도 못 봤어.

그래서 걔는 여기 오고 나는 이제 그 해 우리 누나 시집 보내고 7월 4일 날 나는 미국 들어왔고. 그리고 11월에 신분 바꿨지. 그렇게 해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밖에 한국에 못 가고 이제 여기서 있었지.

[Speaker 2]

그게 2012년이라고요? 아니 9년.

[Speaker 1]

2009년.

[Speaker 2]

8년이네.

[Speaker 1]

2009년에 정착하면서 이제 유천례 집에 있다가 정착은 그때 했지만 2007년부터 유천례하고 인연이 있었지.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정착한 걸로 말하면 2009년 그때부터 그렇고. 유천례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고. 나는 미국 와서 놀아본 적이 많지 않아.

계속 연이어서 일을 했어. 보름 정도 기껏 해야 그때 한국 그때 우리 누나 막내 낳았을 때 그때 그건 이제 노는 건 아니고. 여행이나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맘 편하게 해본 적이 없어.

가까운 데 돌아다니는 거는 남편이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금요일날 저녁이면 끌고 나가고 그러고 돌아다니기로 했는데 맘 놓고 큰 여행을 못 해봤어.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살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도 신분이 해결돼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고 있고 미국에서 사는 거를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정말.

[Speaker 2]

그거 여쭤보면 대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Speaker 1]

아니야 한 글자나 그럼.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데 뭐가 어려워.

[Speaker 2]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Speaker 1]

없어. 후회하고 상관없이 남편이 그리울 때 생각이 나는 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였나. 내가 그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 더 내 가슴이 아파요.

요새 옛날 거 지나간 거 응급 남녀라는 그 드라마를 합치다. 옛날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온디 맨디에서.

[Speaker 2]

맞아맞아.

[Speaker 1]

그게 메디컬 드라마.

[Speaker 2]

송지효 나오는 거.

[Speaker 1]

최진혁인가.

[Speaker 2]

맞아맞아요. 옛날에 봤어요.

[Speaker 1]

요새 재방송 그런 거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때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남편을 죽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남편이 폐가 나빠져서 입원했잖아.

그런데 기도 삭관을 해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봤어. 미국 의사들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맨날 쫓고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그게 너무 무섭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어마어마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도. 그래서 그때 기도 삭관을 했었으면 살렸을 거 아닐까. 요새 그 응급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내가 그런 마음이 슬프지.

그런데 우리 아들은 너무 한국에서 살고 싶어해. 나는 또 걔가 답답해. 내가 아니 지가 한국 가서 뭐 하고 살 거야.

지가. 와이프가 한국에서 와서 그런가?

[Speaker 2]

어.

[Speaker 1]

와이프가 가람이잖아. 자꾸자꾸. 지네 엄마 아빠가 거기 다니고 하니까.

여기 혼자 자고. 오늘 가람이 생일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저녁에 내가 병원도 갔다 오고. 저녁 퇴근하고 밥 먹자. 편지를 어저께도 보냈더니.

자기는 생일에 의미가 없대.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 일단은 보내놓고 밥 먹자고 했지.

저녁에. 우리 가람이는 너무 싫어해. 미국을.

이 남자 하나 보고 온 거지. 미국이 정이 안 든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힘들잖아.

여기 젊은 사람들이 힘들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가람이 입장에서는 아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 이제 누구한테 못 맡기고.

[Speaker 2]

그때가 아주 답답함의 절정인데. 아기를 취업하면 좀 나을 거야.

[Speaker 1]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고생을 해. 왜냐하면 내가 봐줄 형편이 안 되니까.

[Speaker 2]

본인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Speaker 1]

내가 그 얘기 했지.

[Speaker 2]

그러니까 한 3살 돼서 유치원 가면.

[Speaker 1]

내가 그립고 보고 싶다가도 그 생각하면 개 심해가지고. 어저께 또 학교 나왔다고 사진을 보냈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지네가 나하고 접촉을 못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했지.

대상 표지인의 눈이.

[Speaker 2]

그거 끝나는 지가 언젠데 지금.

[Speaker 1]

나는 그때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서. 내가 그것도 개심해서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봤어.

너무 자식은.

[Speaker 2]

자식은 못 이기잖아요.

[Speaker 1]

내가 너무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러더라고. 아들이 엄마 이해하지. 엄마 여기 자기는 미국 의료진을 믿을 수가 없어.

저도 걔도 아빠 살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와가지고.

이제 조금 괜찮은가봐. 나도 잠 못 자고 고생했지만 얘도 엄청 고생했거든. 미국 의료진을 믿을 수 없대.

그런데 한국 갔다 왔잖아. 가람이 영주권 때문에 한국 가서 받아왔어. 그런데 엄마 한국도 마찬가지더라.

신속하게 빠르게는 한국은 봐주잖아.

[Speaker 2]

예약 같은 거 빨리빨리도 되고 병원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대학병원이 힘든데.

[Speaker 1]

대학병원이 힘들어. 여기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 말이야.

[Speaker 2]

본인의 경험이 안 좋았으니까.

[Speaker 1]

나 후회한 적 없어. 그래서 우리 친정 여동생이 여동기관들하고 얘기 많이 하잖아. 처음에 나 여기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언니가 미국 왔다고.

친애가 왔어. 2011년에 나 애리스네 집에 있을 때야. 언니가 남미식무사리 하고 있잖아.

걔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집도 핫고박이잖아. 한국은 어쨌든 번듯하잖아.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열악한 환경은 아니란 말이야 한국은. 형도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사냐.

한국에서도 살만하지 않냐. 살만하진 않아. 공장 다 팔고 왔으니까.

한국 가서 우리 동생 말이 개인 택시대도 해라. 그러고 이제 우리 동생 쫓겨났잖아. 남편한테?

[Speaker 2]

나 자꾸 싫은 소리 하셔가지고.

[Speaker 1]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세상에 한 달 있다 가기는 3개월은 있어야지. 그렇게 좋아 죽더니.

그렇게 싹 돌아서더라. 그래서 애리스네 집에 갖다 놨잖아 내가. 그날 밤부터 데리고 애리스네 집에 갖고 왔어.

애리스네에서 하루 자고. 내일은 서부여행 갈 참이야. 애리스네에서 하루 자고.

그 집은 빈 방이 많으니까. 수영장 방 저쪽에 게스트 방. 거기서 하루 자고.

서부관광 끝나고 바로 갔어. 내가 죽겠다니까. 네 남편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데 지금은 그래.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 언니가 그렇게 고생한 거고.

가슴이 아프고. 형부한테 그렇게 말도 했는데. 지금 형부가 성견질환이 있으셨다는 거야.

지금 언니가 거기서 사니까 이렇게 살지 말게. 언니가 한국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제 막 나쁜 얘기를 할 것도 없지.

지금 노인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그래. 노인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내가 큰 돈 쓸 일은 없잖아.

집세가 그전같이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활은 하잖아. 이 나이까지 일을 해도 미국은 그냥 크게 홈도 아니고.

[Speaker 2]

사실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한국은 사실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제 나이만 돼도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나이에 대한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화날 때가 가끔. 예능 TV 같은 거 보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웃기지 않은 거예요. 한 60만 돼도 할아버지라고. 쉬시려는 등.

그런 게 하는 게 젊은 애들이 장난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나이가 가까우니까 그게 왜 웃겨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 멀쩡하고.

[Speaker 1]

그리고 제도가 조금 다른 게 IHSS 경우 거기는 요양보호사라고 말해. 그런데 거기는 여기는 정부가 우리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

[Speaker 2]

사설기관이세요?

[Speaker 1]

사설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

우리 둘째 신우가 그 일을 하다가 그때 오빠 아팠을 때 왔었잖아. 그만뒀대. 그만뒀대.

너무너무 식무치급을 하고 막 다른데. 그리고 에이전시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리고 거기는 고객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겠지.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 여기는 월급을 연방에서 주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는 사설 사업이더라고요. 개인사업. 그래서 그런 것도 내 동생이 말하는 거야.

미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미국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Speaker 2]

이분은 이민 오신 지가 20년 좀 안 됐잖아요.

[Speaker 1]

안 됐지.

[Speaker 2]

집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미국이? 네.

집입니다.

[Speaker 1]

우리 무식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싫다고 그랬잖아.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계속 보챘어.

지난 봄에는 내가 정확하게 말해줬어. 엄마는 한국 안 가. 아빠도 여기 계시고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가 정착한 곳이지 왔다 갔다 한국에 조그만 집도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남편 돌아가시고 몸이 안 좋았어. 사실은 나 보약도 먹고 이랬다니까 지난 봄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자꾸 힘들어지는 걸 내가 알아서 나한테 쓰는 돈은 나도 100원을 쓰는 것도 벌걸 떠는 편이야. 내가 몸을 챙겨야지 일을 하지. 500불씩이나 주고 내가 약을 해 먹었다고.

내 입장에서는 큰 돈을 쓴 거야. 나한테 쓰는 돈으로는. 그런데 무식이가 엄마는 한국 가서 살아야 돼.

아니 한국에 누가 있다고 내가 한국을 갔니? 누나도 있고 유나 얘기하는 거야. 누나도 있고 엄마 형제들도 삼촌들도 이모도 다 가족들이 거기 있지 않냐 이거야.

솔이도 있고. 솔이 얘기를 해. 걔 이름이 솔이거든.

어차피 나는 나 하나야. 여기서나 거기서나 내가 몸이 병이 되면 나는 언제나 혼자지. 누구 옆에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같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나한테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마.

보호자 아래 내가 너 이러면서 보호자가 김우식인 건 맞지만 나는 나대로 혼자 다 자족하고 자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부담을 느끼지 마. 내가 그거 신신당부해 사실이야.

내 자식은 그렇지 않나 봐. 그냥 마음이 무거운가 보더라고.

[Speaker 2]

그래도 당연히 엄만데.

[Speaker 1]

아니 물론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는 걔한테 짐을 주지 않으려고도 하고 걔가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도 오히려 부모도 부담스러워.

[Speaker 2]

그런데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Speaker 1]

아니 걔가 너무 뭐...

[Speaker 2]

역할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Speaker 1]

엄마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Speaker 2]

자기가 보호자가 되는 거죠.

[Speaker 1]

그런데 책임지지 말라고 그래. 나는 병들면 바로 병원으로 들어갈 거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그런 말도 싫어해.

[Speaker 2]

그럼요.

[Speaker 1]

그런데 자식이 자식이 나한테 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책임만 느끼려고 그래.

[Speaker 2]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냐고.

[Speaker 1]

그런 거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Speaker 2]

그리고 또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Speaker 1]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던데.

[Speaker 2]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식도 부담스럽잖아요. 사랑하지만. 그렇잖아요.

자식도.

[Speaker 1]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얘네들을 양육하는 과정이고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Speaker 2]

그렇죠.

[Speaker 1]

그건 부담이 아니고 부모 노릇하는 거에 대한.

[Speaker 2]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이게 내 일이고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부담이라는 게 약간 막 이렇다기보다 내 결정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질까 봐.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Speaker 1]

그런 결정은 이제 애들이 똑똑히 하잖아요. 소녀는.

[Speaker 2]

그런데 이제 자식도 부모님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서 점점 역할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내가 완전 보호를 받는 거에서 내가 엄마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부모님도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 내가 왜 나는 나 혼자 자랐으니까 부담 안 주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자식도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Speaker 1]

그래. 그런데 나는 그때 애기 낳았을 때 경우로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는 지금 그 애 세 번밖에 못 봤어. 토탈.

깐 낳았을 때 보고 돌 때 보고.

[Speaker 2]

지금 벌써 한 18개월 되지 않았어요?

[Speaker 1]

그랬지 아마. 엊그제 보고. 세 번밖에 못 봤어.

걔 애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지금은 있는데 내가 이제 그때 무슨 밥을 먹지. 내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못 갈 형편이야.

그래서 그럼 네가 교회로 와라. 나는 걔도 예수를 믿기를 원해. 안 다녀 지금은 교회를 걔네 네 애가 다 안 다녀.

자유롭게. 그럼 네가 교회로 와. 여기 맛있는 거 많아.

여기서 먹고 가. 그 사람 많은데 애기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그래.

그게 지난 4월 달 얘기야. 지난 4월 달. 첫 달 지나고 두 달 더 지나서지.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런데 4월 말일경쯤 얘기야.

그러자 이제 5월 초에 내 생일이었어. 옷을 사왔어. 그런데 옷이 찌거워.

아이고 엄마 뭐 살 빠졌겠더니 그대로네 이러면서. 그럼 바꿔 그래. 아이고 이제 속으로 고맙지 고마운데 아니 얘네들이 눈대중이 이렇게 없어.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는 그래도 패션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눈대중이 없니 너는. 내가 그랬더니 아 엄마가 살 빠졌다며. 미씨 스타일의 옷을 사온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게 나한테 맞냐고. 모르겠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옷이라는 건 연령대로 사이즈가 나오잖아.

[Speaker 2]

맞아요 맞아요. 이상하게 굉장히 마르셔도 그럼요. 약간 딱 달라붙게 안 입으셔서 그러신가봐요.

[Speaker 1]

그런 것도 있지만 만드는 과정도요. 미씨들이 입는 XL가 있고 마담 사이즈가 있고 다 달라 그 사이즈가. 그런데 말하자면 걔는 그런 옷을 뭐 옷은 얌전하게 입고도 그만 나는 안 맞으니까 어쨌든.

엄마가 그러면 바꿔 입어 이래. 그래서 얘 영수증 줘 가서 바꾸게. 그걸 그냥 가져가면 거기서 안다고 바꿔준다 그랬어 이래.

프라자마켓 3층이야 이래.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 어머 애기가 할머니 닮았네 이래.

나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으면서 끌고 돌아다닌 거야. 뭐 사다 말았는데 안 데리고 다닌다더니. 그래서 한 번 더 개심해진 거야 이제 내가 속으로.

뭐야 얘네들 되게 웃기네 내가. 그래도 내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줄 알지 우리 애는. 어머 애기가 할머니 닮았네.

막 이래. 그래서 걔 엄마 들으면 기절하겠네요. 걔가 왜 날 닮아.

걔 엄마를 꼭 배 닮았더만. 아유 이제 이렇게 넙두디하게 보이는 게 나랑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 내가 알았는데 노인아파트 싫어하고 또.

너무 칙칙하대 그 분위기가. 싫대. 엄마가 노인아파트 청소해.

아빠. 아 맞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누가 오셔요?

[Speaker 2]

수고해 왔어? 네 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Speaker 1]

아 청소하셨네.